

학부모와 함께하는 ‘새로운 청렴교육문화’ 조성 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

- 매년 신학기·스승의 날 등을 전후하여 학부모 또는 학부모 단체 등이 담임교사, 운동부 담당교사 등에게 불법찬조금·촌지(금품) 등을 제공하고, 극히 일부 선생님들은 관행적으로 불법찬조금·촌지 등을 수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.

❖ 불법찬조금이란?

학부모 단체(학부모회, 운동부 후원회, 학부모 임의 단체)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(또는 학교회계)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

❖ 촌지란?

학부모가 교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으로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행위임

☞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, 제공자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됨

○ 우리학교는 합리적인 예산 운영으로 불법찬조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.

- 학부모 단체¹⁾ 등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행사 지원, 심화학습반 운영비 등을 이유로 불법찬조금을 모금하는 행위를 일부 학교에서 방조·묵인함으로써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보도 등으로 교육현장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.
- 우리학교는 각종 학교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·운영합니다. 따라서, 학교행사 지원 등을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일정액을 할당하는 등의 불법찬조금 모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.

○ 학교 방문은 감사한 마음만 가지고 편하게 오십시오.

❖ ‘원 스트라이크 아웃제’를 통한 일벌백계

- (대가성에 상관없이) 10만원 이상 금품수수 시 파면·해임
-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시 사법기관에 고발

❖ 촌지 공여자(학부모)에 대한 쌍벌제 시행

-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, 시행 (2016.09.28.)
- 교사와 학부모는 직접 직무관련자에 해당되어 금액과 상관없이 일체의 금품 수수행위가 금지됨
-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제공자도 수수자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됨

- 학부모님과 선생님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학교 현장에서 촌지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. 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‘혹시 다른 학부모가 촌지를 주지 않을까’ 그로 인해 내 아이가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을까’라는 불안감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였고, 아직 학교에 빈손으로 가기가 쑥스러운 ‘문화’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
- 감사의 마음으로 전하는 ‘촌지’일지라도 선생님에게는 ‘독’이 됩니다. 퇴직 후 연금 수령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, 감사의 마음으로 전한 ‘촌지’가 선생님에게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- 선생님들이 학부모에게 진정 원하는 것은 ‘아이들의 교육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마음’이라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.

☞ ‘불법찬조금 및 촌지 제로(zero)화’ 를 통한 새로운 청렴교육문화를 조성하는데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.

1) 학부모회, 학교운동부 학부모회, 각종 기능별 학부모회 등

